

『 전남 동부의 지리적 요충지, 순천 』

지리교육과 2학년 유성현

1. 한눈에 보는 순천시

순천시는 한반도의 서남부에 있는 전남 동부 지역의 교육, 문화, 관광, 교통의 중심도시이며, 산자수려한 터전 속에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 민속 마을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4번째로 많은 문화재와 조상의 얼이 깃든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구 분	지 명	극 점	
		경도(동경)	위도(북위)
극 동	해룡면 호두리 당두	127°35' 18"	34°53' 03"
극 서	송광면 월산리 삭시	127°10' 37"	34°58' 32"
극 남	별량면 구룡리 용두	127°25' 18"	34°49' 39"
극 북	황전면 비촌리 칠안	127°24' 32"	35°11' 08"

《순천시의 수리적 위치》

2. 순천시의 자연환경



《순천시 행정구역도》

순천시의 전체적인 모양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약간 길쭉한 타원형을 이루고 있고 북서쪽으로 주암면 운룡리 용두마을과 황전면 비촌리 칠안마을이 소의 두 뿔모양으로 돌출되어 있다.

순천시의 지형과 지세는 대체로 북쪽과 서쪽이 높고 기복이 심하며, 남동쪽이 낮다. 따라서 순천만과 광양만에 접해 있는 남동쪽에 다소의 평야지대가 분포하고

있을 뿐 시의 대부분은 산악이 중첩해 있다. 소백산맥이 태백산맥에서 힘차게 뻗어 나와 남으로 향하다 남해를 맞아 웅크린 형상의 지리산 지맥이 이 지역에 이르르고 있다.

또한 소백산맥의 말단부에 해당되어 크고 작은 많은 산들이 자리하고 있고, 산수의 경관이 수려하다. 산지의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대·소하천의 유역과 해안지역에 발달한 평야는 비옥하며 토심이 깊고 잘 가꾸어져 있어서, 각종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잠업 등이 활발하며, 이 지역 주민들의 주 활동무대가 되고 있다.

한편 순천만에 접해 있는 별량면과 광양만에 접해 있는 해룡면 해안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다. 바다가 잔잔하며, 포구가 발달되어 있고, 조수간만의 차도 심하지 않으나 수심이 얕기 때문에 큰 항구로서의 입지조건은 갖추지 못하여 소형 어선만이 출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패류양식과 소금생산의 적지이고, 지형적 여건에 따라 간척사업이 해방 이후에 활발히 추진되어 넓은 바다가 육지로 변하였으며, 앞으로도 간척·매립사업의 가능성이 많은 곳이다.

3. 지리적 요충지 순천시

한반도의 남쪽 끝에 위치한 전라남도 동부지역은 마한과 백제의 옛터로, 일찍부터 살기 좋은 고장으로 알려져 왔다. 순천시는 전라남도 동부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시의 주변에는 동쪽에서 북-서-남쪽으로 돌아가면서 광양시·구례군·곡성군·화순군·보성군·여천군이 접해 있고, 남쪽의 일부는 바다에 면하여 있다. 순천만과 광양만에 있는 해안선의 총연장은 36km에 이른다.

순천시는 이리에서 여수로 이어지는 전라선 철도와 송정리에서 삼랑진으로 이어지는 경전선 철도의 교차점이다. 전주에서 여수로 이어지는 17번 국도와 목포에서 진주-마산-부산으로 이어지는 2번 국도의 교차점이고, 호남·남해고속도로가 동서로 관통하고 있어서 지리적으로 결절점(nodal point)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이다.

또한 순천만과 광양만을 통하여 남해와 접하고 있어서 해상교통도 편리하다. 따라서 일찍이 995년부터 연해군절 도사가 주둔하는 등 기능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 오늘날에도 여수, 여천, 광양 3개시와 여천, 구례, 곡성, 보성, 고흥, 5개 군의 지역생활권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명실공히 전라남도 동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

4. 순천시의 연혁

순천시는 백제시대에는 함평군이었으나 신라 경덕왕 때 승평군으로 고쳤으며, 996년에는 승주군으로 바꾸었다가 1036년 승평군으로 환원하였다. 1309년에는 승주목으로 승격하였으나 이듬해에 순천부로 다시 강등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세종 때에는 순천진을 설치하여 부사가 병마절도사를 겸하도록 하였으며 그 산하에 낙안·보성·광양·고흥·능주·동북·구례 등 8읍을 관할하게 하였다. 1895년 순천군으로 개칭하였다. 8·15광복 후 1949년 8월 순천읍과 도사면 일부 해룡면 일부를 통합하여 순천시가 되고 종래의 순천군은 승주군으로 개칭하였다.

5. 순천시의 기후적 특성

순천지역은 우리나라 남부해안에 가까이 위치하여 기온의 연교차가 비교적 작고, 겨울이 짧다. 따라서 벼의 파종 및 이앙시기가 빨라서 농사계절이 북부나 중부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길며, 각종 생산물이 풍부하고 주민들이 활동하기에 편하다. 이 지역의 후덕한 인심은 이와 같은 자연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6. 순천시의 인구 특성 및 인구이동

순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연령별 특성은 노년층 인구의 비율이 높고 청장년층 인구의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60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는 전국이 7.8%인데 순천이 10.4%이고, 16-59세 인구의 구성비는 전국이 66.5%인데 순천이 64.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천시는 대체로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인구의 사회증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1993년 즈음에는 전출 4만 7,423명에 전입 4만 8,750명으로 처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전출지역은 1993년의 경우 도내가 73.4%이고, 도외가 26.6%인데 도내는 인근의 광양·여수·여천·보성·화순·곡성지역이 많고, 도외는 서울·광주·부산 등 대도시지역이 대부분이다. 전입자의 전 거주지는 도내가 78.0%, 도외가 22.0%로 도내의 비율이 전출자의 경우보다 많다. 지역별 분포는 전출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인근지역의 비율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외지역의 전입 및 전출

은 중동지역의 건설산업이 활기를 띠던 1980년대 중반에 한때 활기를 띠었으나 현재는 미미한 실정이다.

7. 순천시의 산업

순천에서는 울촌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수도권 기업의 입주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순천시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수도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권역별·분야별 투자설명회의 결실이다. 울촌산업단지 내에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정부 지자체의 공동협력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하여 전남 테크노 파크가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산업단지란 대학·연구기관·기업·정부·지자체의 공동협력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시설, 첨단기업보육시설, 기술지원 서비스시설과 시험생산시설을 동일지역에 집적시킨 단지를 이른다.

《참고 사이트》

- 순천시청(<http://www.suncheon.go.kr/index.jsp>)